

#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2 Number 04 **04** 2014



**Q & A** 시리즈(1)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요?

## 질문에 대한 첫 단계 **가인의 아내는?**

창조과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바로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요?”이다. 미국 대표적인 창조과학 단체가 뽑은 ‘창조과학자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에서도 줄 곳 선두를 빼앗기지 않은 질문도 이것이다.

질문인 즉, 성경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아내와 동침했다”(창 4:17)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아담의 자식은 가인, 아벨, 셋 이외에 또 있다는 것 아닌가?’ 이 아내는 어디서 왔고, 아담 말고 창조 때 이미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 대충 이런 식이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 답변한다고 할지라도, 잠재적으로 갖고 있던 의문이 꼬리를

## Q & A 시리즈(1)

물고 계속해서 더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근친결혼, 인류의 기원, 진화론적 세계관, 지구의 나이 등 얽혀있는 잠재된 의문이 계속 꼬리를 물고 등장한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게 되면, 역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잠재적인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하나 둘씩 매듭이 풀어 지듯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는 기회로 삼게 된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 속의 실마리는 하와가 셋을 낳았을 때 했던 고백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창 4:25).

여기서 씨는 그의 아들인 셋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와가 아벨 ‘대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아 셋이 태어난 때는 아벨이 태어난 다음이 아니라 ‘아벨이 죽은 다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았다고 말한다(창 5:3). 그렇다면 셋이 셋째 자식이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여럿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서부터 노아홍수 이전까지의 족보가 순서적으로 적혀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아담 후손의 모든 이름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다. 노아의 직계조상만을 적어놓은 것이다. 즉 세대는 빠짐없이 적었지만,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아는 자신의 여러 형제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구원 받은 노아의 자신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버지인 라멕도 많은 형제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아의 직계 조상인 라멕만 적은 것이다. 이는 노아의 할아버지인 므두셀라, 증조인 에녹도 마찬가지다. 그들 모두에게 형제 자매가 있었겠지만 그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지 않았다. 즉 이 족보의 기록 목적 중에 중요한 점은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홍수 심판 이후 오직 노아만 살아 남았으며,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경은 아담서부터 예수님의 족보까지를 연결하려는 것이다.

분명히 아담은 다른 자녀들도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그들 중에 단지 첫 살인자 가인, 첫 피살자 아벨, 그리고 홍수 심판에서 유일한 구원자인 노아의 직계조상인 셋만을 기록한 것이다. 이 족보의 시작인 아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창 5:4)

즉 아담은 세 아들만은 낳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는 셋을 낳은 후를 말하

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셋을 낳기 전인 130년 동안 아담이 아들만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 모순된 생각이 아닌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 명령으로 “생육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단지 아들만 주었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는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인은 아내를 어디서 얻었을까? 선택의 여지없이 자신의 여동생이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벌을 주셨을 때 “무릇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일 것입니다”(창 4:14)라고 가인이 극도로 두려워한다. 왜 가인은 이렇듯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 만약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자신과 관계가 먼 자들이라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만날 사람들이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 아닌 모두가 자신의 형제들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온 인류는 아담의 직계 후손이라고 말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행 1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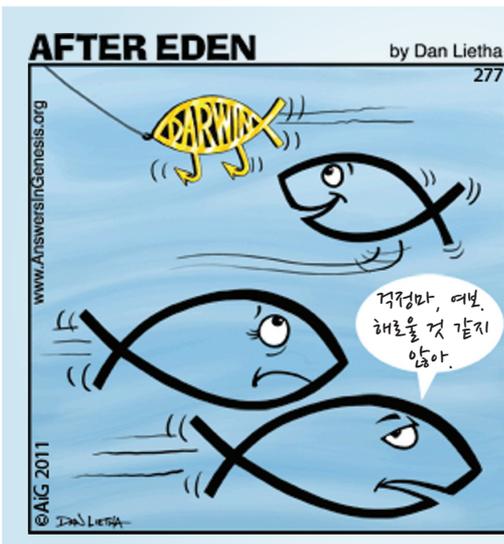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롬 5:12)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 15:45)

그러므로 가인뿐 아니라 아담의 자녀들은 모두 오누이끼리 결혼했음에 틀림없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이미 붙잡혔다.



## 질문에 대한 둘째 단계 **근친아닌가?**

가인의 아내가 여동생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만약에 그 아내가 여동생이라면 근친결혼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 이 근친결혼에 대한 부분이 가인이 여동생과 결혼했다는 성경적인 질문보다 더 부담되는 궁금증이다. 왜냐하면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 꼼꼼히 맞춰보면 찾을 수 있지만, 근친결혼에 대한 질문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가까운 근친결혼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몸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돌연변이 같은 과정에 의해 이미 많은 유전자 손상을 입었다. 그런데 오누이끼리 또는 가까운 친척끼리는 그 손상 받은 유전자부위도 비슷하므로 서로 관계를 가질 경우 그 후손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아빠가 Aa이고 엄마가 Aa 유전자를 각각 가졌다고 하자. 이 둘이 결혼을 하면 다음 세대는 유전적 재조합에 의해 확률적으로 각각 AA, Aa, Aa, aa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만약 아빠가 돌연변이에 의해 A유전자에 결손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Aa, Aa는 엄마에게서 온 a나 A유전자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유전자의 기

능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자식들끼리 근친결혼을 할 경우, 예를 들어 AA나 Aa를 가진 오빠가 AA나 Aa를 가진 여동생과 결혼하면 AA의 조합을 갖는 경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는 A에 대한 기능을 하는데 치명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가까운 근친결혼은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날의 세상과 지금 우리의 신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지금의 세상은 창조 이후에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주요 사건을 겪은 후에 맞고 있는 변질된 모습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성경은 이 굵직한 사건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다. 아담의 후손이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던 노아홍수 심판사건 이후에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추위와 더위가 등장한다. 즉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았어도 좋았을 정도로 날씨가 좋았다는 의미다. 홍수심판 이전 노아의 족보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900살 이상씩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홍수를 지나며 나이가 갑자기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신체에 변화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즉 창조되었을 당시의 아담 부부의 신체는 흠이 없을 정도로 좋았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가인이 자신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여도 생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 가인이나 여동생이나 유전자에 거의 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노아홍수 직후에도 비슷하게 펼쳐진다. 홍수심판 이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인 함, 셈, 야벳 세 부부는 자식을 낳았을 것이다. 과연 이들의 자식들은 누구와 결혼했을까? 아무리 멀어도 사촌지간 일 것이다. 그래도 그때까지 유전적 결손이 그리 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홍수 후에 태어난 노아의 후손들은 한동안 서로 결혼했을 텐데, 이런 상황에 변화를 주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킴으로써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 이때 흠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한다. “각기 언어와 족속과 나라대로”(창 10:5). 영어로는 “after their languages, after their families, in their nations”로 번역되어 있다. 풀어서 쓰면 “언어에 따라, 가족(들)에 따라, 그들의 나라가 되었다”이다. 즉 하나님께서 가족끼리 흠으셨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당시에 흠어지며 이들의 자식들은 누구와 결혼했을까? 여기에서도 여전히 오누이간의 결혼이 그려진다.

이런 근친간의 결혼은 바벨탑 사건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그들은 모두 근친 간에 결혼을 했다. 아브라함의 가계도표가 도움이 될 것이다(그림). 아브라함과 그 아내인 사라와의 관계는 아버지(테라)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여동생이다(창 20:12).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서로 오촌간이다. 즉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들 브두엘의 딸이다(창 22:23).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남종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창 24:4). 여

가서 내 족속은 영어로 “my own relatives”, 즉 가까운 친족을 의미한다.

이런 모습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등장하는데, 야곱과 아내인 라헬은 서로 의사촌간이다. 더군다나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한다. “네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창 28:2). 라반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다. 이삭이 야곱에게 의사촌과 결혼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만해도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장려하고 있었다. 또한 에서가 다른 족속의 여자와 가까이 하는 것을 걱정하는 리브가의 걱정(창

27:46)을 보더라도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엿보게 한다. 성경은 여기에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는다. 어색한 부분도 없다. 그러나 성경을 사실로 보고 접근을 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우리 신체는 처음이 좋았으면, 이때 까지만 해도 근친결혼을 하더라도 유전자 결혼 위험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근친결혼을 허용

하던 상황이 반전되는 대목이 등장한다. 바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명령에서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레 18:6)

“너는 제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레 18:9)

살붙이는 가까운 친척(close relatives)을 말한다. 야곱 때만해도 허용과 장려를 하던 상황이 수백 년 후에 바뀐 것이다. 그동안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우리 몸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한결같은 하나님께서 조치를 바꾸실 때는 우리가 변했을 때다. 허락이 아니라 장려하던 근친결혼을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변명도 없이 명령하셨다. 사실인 성경적 역사를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근친결혼 금지는 당연한 조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역사관과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성경을 사실로 놓고 볼 때 ‘가인의 아내’는 그 답에 어려움이 없다. ‘가인의 아내’ 질문은 우리의 몸과 환경이 과거에도 지금과 똑 같았다는 사고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 역사가 사실이라는 생각으로 당시 상황으로 들어 가면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된다. 더 나아가 자신이 갖고 있던 제한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처음이 좋았던 성경적 역사관을 갖추게 하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재만(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 질문에 대한 셋째 단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된 이유



이 질문은 특히 미국 사람에게 더 많이 받는다. 이 질문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1925년에 있었던 일명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리는 사건이다. 당시 미국의 테네시주 교육법 상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었는데, 스코프푸라는 고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진화론을 가르침으로 발생했던 소송사건이다. 1주일 동안 진행된 재판이 공판사상 처음으로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진화론 측 변호사는 재판이 일어나게 된 일차적 원인인 법적 문제보다는 거의 모든 시간을 성경의 난해한 부분을 공격하는데 할애하였는데, ‘가인의 아내’는 이때 그가 던졌던 질문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때 창조론 측 변호를 맡은 브라이언(William Jennings Bryan)은 대부분의 다른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잘했으나,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히 답변을 하지 못했다. 아래는 이 부분에 대한 대화내용이다.

Q - 가인이 어디서 아내를 얻었는지 찾았습니까?

A - 아니요, 나는 이 부분은 불가지론적으로 남겨놓았습니다.

Q - 결코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A -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Q - 노력한 적이 없어요?

A - 없습니다.

Q - 성경은 그가 아내를 얻었다고 말하지요. 그렇죠? 그때 지구 상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말인가요?

A - 말할 수 없습니다.

Q - 고려해본 적이 없다고요?

A - 그것이 내게 어려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Q - 어떤 다른 사람의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A -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Q -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 전파되며 더욱 여러 사람에게 알려진 질문이 되어 버렸다.

‘코스모스’의 저자며, 미국에 진화론이 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진화론자 칼 세이건도 동일한 질문으로 크리스천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가인의 아내’는 진화론자들에게 성경을 비판하는 일종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재만(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 신학생 집중세미나 / 창조과학탐사 / 세미나

### 풀러 신학생 창조과학 집중 세미나

지난 2월 18-19일 풀러 신학생들을 위한 집중세미나가 열려 5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강사는 이재만 선교사, 최우성박사였습니다. 풀러 신학생 세미나는 매년 봄에 열렸는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에서 매달 한 번씩 신학생들을 위한 창조과학 학술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시는 목사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장소는 풀러 신학교 근처에 있는 사랑의 빛 선교교회(담임목사 윤대혁)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 린치버그 한인 침례교회 세미나

지난 2월 21-23일 사흘간 린치버그 한인 침례교회에서 이재만 선교사는 창조과학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이 교회는 리버티 신학교가 있어서 교회 90% 이상이 한인 신학생과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번 2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세미나를 마친 후 내년 초 이 지역의 대학청년부 연합수련회와 신학생들을 위한 정기적인 세미나도 계획했습니다.

### 신학생을 위한 창조과학탐사

3월 17-20일 신학생을 위한 창조과학탐사를 출발합니다. 이번이 네 번째인데, 이번에는 창조과학선교회 자체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40여명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 시대에 신학생들을 위한 창조과학 프로그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교회를 이끌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화론이 등장한 이래로 신학교 안에서도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는 경향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신학생들을 향한 사역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창조과학탐사

#### 진새골 교회

지난 2월 24-26일 가정사역으로 활발한 경기도 광주시의 진새골 교회에서 주수일 장로님을 리더로 창조과학탐사를 가졌습니다.





플러 신학생 창조과학 집중 세미나

다. 이번 창조탐사는 미국을 방문하여 자체 가정 사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뉴저지 온누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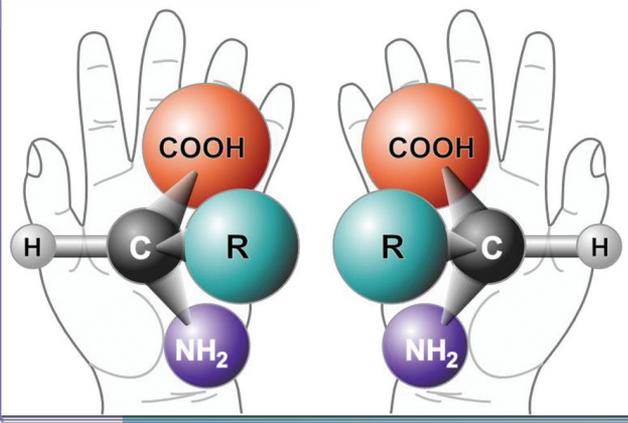
지난 3월 4-7일 뉴저지 온누리교회(담당목사 Marc Choi)와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InTo 온누리 교회가 창조과학탐사를 참석했습니다. 동부의 폭설로 인해 전체 일정이 하루가 연기되는 어려움 가운데도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두 교회는 앞으로 매년 12월 초 정기적인 세미나와 3월 첫 주 창조과학탐사를 갖기로 계획했습니다.



뉴저지 온누리교회

광명 우리교회





## 세포는 창조 기적의 산물

사람의 세포를 이루고 있는 부품(molecule, 분자) 수는 물과 무기물을 제외한다 해도 약 1조 개나 된다. 이 수는 지름이 20  $\mu\text{m}$ 인 사람의 보통 세포 한 개에 들어 있는 부품 수로 약 600만 개의 부품으로 제작된 보잉 747 비행기 156,000대의 부품 수에 해당하는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세포가 무기물에서 저절로 조립된 것일까, 아니면 지적인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까?

1950년대 초,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밀러는 수소( $\text{H}_2$ ), 메탄( $\text{CH}_4$ ), 암모니아( $\text{NH}_3$ ), 그리고 수증기( $\text{H}_2\text{O}$ ) 등 4가지의 가스만을 선택하여 주입한 실험관에 자연스러운 번갯불 대신 전기 방전을 시켜 생명체의 주요 부품인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실험 결과는 진화론이 행했던 유일한 성공적인 실험으로 여겨졌다. 생명체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을 얻었기 때문에 진화론을 강화하는 데 엄청난 파장을 미쳤다. 그래서 아직까지 화학진화의 증거로 이 실험 내용이 많은 과학 교과서들에 실려 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진화론자들도 오래 전부터 생명 발생의 과정으로 여기지 않는, 이미 버려진, 이론이다.

진화론자인 다이슨(Freeman Dyson)은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환원상태 대기 조건에서 아미노산으로 가득 찬 연못으로 대변되는 그럴듯한 밀러의 그림이 불신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그럴듯한 그림이 등장했다. 이 새 그림은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 있는 뜨거운 구멍에서 생명이 생겨난다고 한다.”

생명체의 자연 발생을 설명하려는 밀러의 실험에서 핵심적인 문제점은 무엇인

가? 밀리의 실험 결과로 생성된 아미노산들은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정상적인 단백질을 형성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생명체 단백질들은 L-형의 아미노산만 필요한데 밀리가 만든 아미노산들은 L-형과 D-형이 50%씩 섞여 있는 라세미체였기 때문이다(그림). 생명체들은 L-형의 아미노산만 단백질 합성에 사용하는 데 반해 화학합성 결과는 언제나 L-형과 D-형이 50%씩 만들어진다. 이런 원료를 가지고 L-형의 아미노산으로만 구성된 단백질이 모두 만들어질 확률이 0다.

이 외에도 지구 초기부터 풍부하게 존재했던 산소를 제외한 점과 자연에서 얻을 수 없는 실험 장치를 사용한 점도 밀리의 실험 결과가 자연발생을 지지하는 실험이 될 수 없는 심각한 이유들이다. 산소는 화학 합성에 치명적이며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생명체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

밀리 실험의 문제점은 밀리가 죽었던 날 로이터 신문 기사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밀리와 주류 과학자들은 생명 창조를 이해하기 위해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실제로 실험을 수행한 당돌함이었고 이것이 그 분야의 첫 번째 성공이었다.” L-형의 아미노산만으로 구성되는 단백질뿐 아니라 DNA의 구성 요소인 5탄당 2-deoxyribose도 D-형으로만 수억 개 이상 연속적으로 연결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밀리가 생각했던 방법으로는 생명체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음이 명확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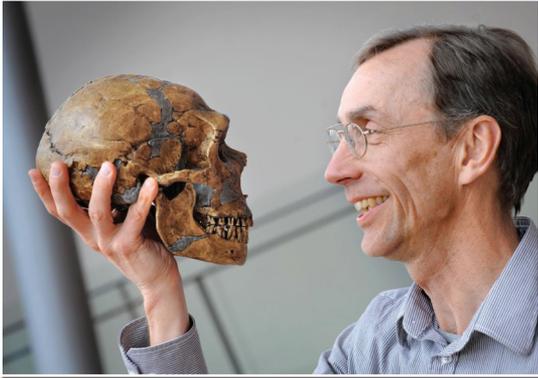
부품들의 조립은 더욱 어려운 문제다. 기능을 하는 부품들이 모두 만들어질 확률이 0이지만 무한히 양보를 해서 모두 다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 부품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생명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작은 세포로 조립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 가장 확실한 법칙인 열역학 제 2 법칙에 의하면 모든 시스템은 무질서해지지만 하지 저절로는 질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람 세포의 경우 1조 개가 넘는 부품들이 조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과학자도 이 부품들을 20 um의 작은 공간에 모을 능력이 없는데 그 모든 부품들이 저절로 그 작은 공간에 적재적소에 배치된다는 상상은 지나친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포는 자연스러운 화학 반응과 물리적인 과정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 과학자도 세포에 필요한 모든 부품들을 다 만들 수도 없을뿐 아니라 만든다해도 조립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세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열역학 제 2 법칙을 위반하는 기적이 있었던 것이

다. 창세기 1장의 생명체 창조 과정이 과학적 논리에 잘 어울리는 설명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세포는 전능하신 창조자의 작품들이다!



# 유전학은 네안데르탈인이 사람임을 입증한다.



많은 과학자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고대 DNA에 대한 연구는 현재 유전체학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야다. 사실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새로운 연구 논문들은 과학자들이 현대 인류의 유전자 데이터에 있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서열을 컴퓨터

를 사용해서 연구하고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류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자들의 공통된 생각은 네안데르탈인이 유럽과 아시아 쪽의 다른 고대 인류와 혼혈이 된 한 종류의 인류 조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생각이 받아들여지면서, 여러 연구팀들은 현 인류의 유전체에서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이입되었을 것이라고 믿는 유전자 부분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찾아내는 방법들을 개발하였다.

최근 두 가지 연구에서 두 연구팀은 각각 약간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한 그룹은 두 단계 전략을 사용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들은 현대 전 세계 다른 인류 그룹들의 유전체를 비교해서 변이에 민감한 부분들을 지도화했다. 그리고 나서 그 유전자 부분을 네안데르탈인의 표본 유전자와 비교했고, 충분한 수치의 일치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네안데르탈인의 35~70% 정도의 유전체가 오늘날 인류의 유전자에도 존재함”을 주장했다.

또 다른 연구 그룹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적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세 가지 다른 자료들을 조합했다. 이전 그룹의 연구처럼, 그들도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서열을 표본으로 사용했다. 만약 이 유전적 변이에 대한 세 가지 자료가 모두 다 긍정적이고, 네안데르탈인과 일치한다면, 이

여러 연구팀들은 현 인류의 유전체에서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이입되었을 것이라고 믿는 유전자 부분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찾아내는 방법들을 개발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네안데르탈인의 35~70% 정도의 유전체가 오늘날 인류의 유전자에도 존재함”을 주장했다.

DNA 부분은 기원이 네안데르탈인인 것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전 연구팀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전 세계인들의 주요한 유전적 변이의 유전자 부분들을 정리했다. 사실 이 그룹은 현대 인류의 유전자 속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네안데르탈인 대립형질 유전자들을 발견했는데, 이 사실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정보가 계속해서 인간생물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비록 이러한 연구들이 현대인의 유전자 속에 네안데르탈인 DNA가 다양한 정도로 섞여 있음을 보여줬을지라도, 이들의 연구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첫째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체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단지 몇 개체의 네안데르탈인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다. 사실 전체적으로 유전자 서열이 완벽하게 구성되어있는 것은 단 한 개체에 불과하다. 어떻게 이렇게 소수 개체의 유전자 서열만을 가지고 전 세계 현 인류의 유전자에 대한 광범위한 통계적 주장을 펼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과학자들은 여러 개의 통계적 모델들을 사용했고, 그중에서 주요한 몇 가지만을 가지고 네안데르탈인의 DNA인지 아닌지를 결정했다. 명백하게도 이러한 접근 방식 때문에 특정 DNA가 네안데르탈인의 것이 아니라고 결정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 말은 이것들이 모두 인간의 DNA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연구들은 이전부터 있었던 명백한 유전적 증거들에 아주 약간의 증거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 그러한 명백한 증거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8명의 사람으로부터 이어진 또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사람들의 화석은 홍수 지층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서 묻힌 채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화석들의 연대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4만 년이 아니라 4천 년 이상을 넘을 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저자: Jeffrey Tomkins, Ph.D. (유전학), ICR 연구원

번역: 조희천, ITCM 수료, Computational Engineering (Geophysics 전공) 박사과정

# 빙하시대 탐사

7/11-13, 2013

## 간증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실제로 느껴보고 싶다는 갈급함이 있던 차에 혹시나 하는 기대로 오게 됐어요. 모든 근거가 말씀(성경)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 더 말씀을 사모하고 내 삶의 명확한 기준은 이것뿐 이라는 확신과 이 모든 것이 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창조물이라는 감사와 기쁨이 생겼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창조과학 팀을 언제나 기도로 중보 하였습니다. - 김초연

빙하시대 창조과학 투어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눈과 귀로 확정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세상의 지식, 과학, 어떤 학문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갈 수 없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장현우

저의 예상보다 더욱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왔다 라고 당당하게 말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내가 본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들이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저주의 결과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내 안에 진화론적인 사고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말씀이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까지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주변으로 흘려 보내겠습니다. - 조상현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그저 저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게 되어서 저의 미래의 신앙 생활과 나의 꿈을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 이신국

이번 요세미티 빙하시대 창조과학 투어를 통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식적으로 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느끼고 체험 했습니다. 무엇보다 진화론이 퍼져있는 세상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전하는 사명감 갖고 살겠습니다. - 조학성

성경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살아계시며 창조주 되심을 확신 할 수 있게 되었고,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또 다른 예수쟁이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박예준

“그냥 가보지 뭐” 하며 처음으로 투어 버스에 올랐는데 내릴 때 태도는 전혀 달랐고 ‘창조 vs 진화’에 대한 개념 또한 명확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거짓은 진실과 공존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진실로 좀 더 영의 눈이 밝아진 채 이제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참 진실을 직접 경험한 우리들이 진화론을 세상에서, 교과서에서부터 도려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유도현



감사합니다. 창조 그리고 사실...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 진정한 사실인 성경만 온전히 전해지도록 노력하며 동참하겠습니다. - Pastor Choi

잘 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바로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Grand Canyon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진화론이 어떻게 틀렸으며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사실적인지 공부 할 수 있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번도 제대로 알려 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 기회로 확실하게 바로 잡아 나중에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줄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 이조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심을 알 수 있고 깨닫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섭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자 이신 하나님께서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주신 마음은 사명감이 다시 불타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배우고 아는 모든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데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혜림

이 여행을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진실을 보게 되었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과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 김태현

그랜드 캐anyon과 창조과학 탐사여행으로 뿔린 눈으로 빙하시대를 왔는데, 역시나 놀라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공학도로써 과학적으로 풀려 나가는 것이 역시나 너무 통쾌했습니다. - 박호인

창조과학 탐사에 오기까지 많은 생각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 곳에 오게 되었는데, 그동안 무작정 주님만을 믿었지만, 창조과학을 통해 하나 하나씩 깨달아 가면서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게 된 것 같아 이번 여행이 뜻 깊고 값진 경험이었다 것 같습니다. - 장지현

저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완성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었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섬겨주시는 이재만 선교사님과 그 외 스태프들 정말 감사 드리고 진화론이 패하게 되는 그 날까지 파이팅 입니다. - 이형원

대학생의 본분 중 하나인 학업도 포기하면서 왔지만 아깝지 않고 오히려 비교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기존 기독교인들 에게는 더욱 과학적이고 효과있게 믿음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비신론자들에게도 좋은 전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 이강건

제가 생각하는 창조과학(빙하시대 탐사)은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를 사랑과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사랑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 오민석

●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Home page(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4년

- 4/4 총현 선교교회 (이재만), CA
- 4/7-13 창조과학탐사 (창조과학대전지부), 이재만
- 4/15-17 창조과학탐사 (라스베가스하나교회), 김선욱
- 4/25-27 North Bay 장로교회(이재만), CA
- 4/28-5/2 창조과학탐사 (빛나교회), 이재만

- 5/2-8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 5/9-16 창조과학탐사 (선한목자교회), 이재만, 최우성
- 5/14 포모나인랜드교회 (이재만), CA
- 5/15-17 창조과학탐사 (총현선교회), 이재만
- 5/22-29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 5/26-29 창조과학탐사 (시애틀형제교회), 최우성
- 5/31 순회선교단 (이재만), CA

- 6/1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CA
- 6/8 주님의영광교회 (최우성), CA
- 6/12-14 빙하시대탐사 (오렌지한인교회), 이재만
- 6/15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CA
- 6/16-19 빙하시대탐사 (뉴욕퀸즈한인교회), 이재만
- 6/16-20 창조과학탐사 (성은장로교회), 김선욱
- 6/20-27 빙하시대탐사 (햇볼 트리니티 CEO School), 이재만
- 6/22 주님의영광교회 (최우성), CA
- 6/23-25 창조과학탐사 (주님의빛교회), 김선욱
- 6/30-7/3 창조과학탐사 (몽고메리 늘푸른 장로교회), 최우성
- 6/30-7/3 창조과학탐사 (뉴욕신일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http://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http://www.HisArk.com) / [hisark@gmail.com](mailto:hisark@gmail.com)